

# 중앙공원 1지구 보증서 제출 시한 임박...광주시 중대 결정 주목

### 시, 빛고을개발에 이달말까지 456억 규모 보증서 제출 독촉 한양 "한양 동의없이 보증서 어려워...시공권 등 명확히 해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관련 보증서 제출일이 다가오면서 광주시가 언급한 '중대한 결정'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사업 시행자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아직까지 보증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출 여부에 따라 일시 중단돼 있는 사업의 재개 여부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사업 시행자인 특수

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에 이달 말까지 사업·협약 이행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사업 이행 보증서는 공원 조성 공사비의 10%에 해당하는 130억원 규모, 협약 이행 보증서는 토지 매입비의 10%인 326억원 규모로 사업이 무산될 때에 대비한 보증금 성격이다.

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하고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정상 추진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중대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며 보증서 제출을 독촉했다. 일각에선 사업자 지정 취소까지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양" 대 "비한양"으로 나뉜 SPC 내 갈등은 보증서 확보 과정에서도 마찰을 빚고 있다. 비한양 측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현재 사업재개 여부를 결정지를 보증서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반면, 한양측은 "한양의 동의없이 보증서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한양의 동의 없는 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동사업자이자 감독적인 광주시는 하루빨리 (SPC측에) 정상적인 보증서 제출을 요구하고, (보증서 미제출 등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원인과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양측은 "한양만이 보증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토지보상에 착수할 준비도 돼 있다"면서 "광주시는 사업 제안요청서에 규정된 대로 한양의 대표권, 시공권을 명확히 하고 사업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양측은 특히 "토지 소유자들의 조기 보상 요구

가 거세다"면서 "토지보상에 착수할 모든 준비도 돼 있는 만큼 보증서 문제를 해결한 이후 토지보상에도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는 계약 당사자인 SPC가 유일한 협상 대상자라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계약 당사자는 한양이 아닌 SPC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면서 "SPC측에서 보증서 제출기한을 지키지 못한다면 계약서와 법적 절차에 따라 판단하겠으며, SPC 내부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돼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정상 추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이용섭 광주시장이 27일 오후 동구 용연정수장에서 열린 고도정수처리시설 현판 제막식에 참석해 시설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 광주 용연정수장 고도 정수처리 시설 본격 가동

광주 용연정수장 고도 정수처리 시설이 시운전을 마치고 수돗물 공급에 들어갔다.

광주시는 27일 용연정수장에서 고도 정수처리 시설 현판식을 열었다. 이 시설은 하루 30만ℓ 수돗물 생산하는 규모로 500억원을 투입해 2017년 5월 착공, 지난해 12월 준공됐다.

4개월간 자체 시험 가동을 마치고 지난 5일부터 수돗물 생산에 들어가 현재 하루 29만ℓ을 광주 동

구, 북구 일원에 공급하고 있다. 전국 492개 정수장 중 50곳이 고도 정수처리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용섭 시장은 "수돗물 생산에서 첫 번째 할 일은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생산, 공급 관리 전 과정에서 전문성을 높여 시민들이 수돗물 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영광에 200억 들여 국내 첫 미래차 전자기파 인증시스템 구축

전남도, 정부 공모사업 선정

전남도가 산업통상자원부의 '미래차 전자기파 적합성 인증시스템 기반 구축사업'에 선정됐다.

'미래차 전자기파 적합성 인증시스템 기반 구축사업'은 미래차의 핵심기술인 고전력 기반 기술과 차량 무선기술이 적용된 차량·부품의 전자기파 적합성 검증·인증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오는 2023년까지 총 200억원을 들여 영광 대마전기차 산업단지에 추진한다.

최근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와 자율주행차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는 가운데 고전력 기반의 친환경 차량과 무선통신 기술이 집약된 자율주행 차량 개발이 가속화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자기파 인증 수요는 늘고 있으나, 국내 고전력 기반 인증 인프라는 부재한 실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전남은 국내 유일의 400V 이

## 영광에 200억 들여 국내 첫 미래차 전자기파 인증시스템 구축

### 전남도, 정부 공모사업 선정

전남도가 산업통상자원부의 '미래차 전자기파 적합성 인증시스템 기반 구축사업'에 선정됐다.

'미래차 전자기파 적합성 인증시스템 기반 구축사업'은 미래차의 핵심기술인 고전력 기반 기술과 차량 무선기술이 적용된 차량·부품의 전자기파 적합성 검증·인증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오는 2023년까지 총 200억원을 들여 영광 대마전기차 산업단지에 추진한다.

최근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와 자율주행차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는 가운데 고전력 기반의 친환경 차량과 무선통신 기술이 집약된 자율주행 차량 개발이 가속화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자기파 인증 수요는 늘고 있으나, 국내 고전력 기반 인증 인프라는 부재한 실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전남은 국내 유일의 400V 이

상 고전압·고전류 차량·부품 인증평가 가능 시험기관을 보유하게 됐다.

특히 중대형 전기버스, 수소 전기 트럭을 포함한 모든 차종에 대한 전자기파 적합성 인증이 가능해져, 국내 인증시장을 선점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미래차 관련 기업의 투자 유치도 이끌 토대를 마련했다.

또 강화된 해외 법규 및 완성차 전자파 인증 획득이 쉬워져 국내 자동차 관련 기업의 개발·인증비용 절감(약 40% 이상·1건당 2000만원)과 함께 유럽·중국 등 수출 증대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주순선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급변하는 미래형 운송기기 산업 패러다임의 핵심 기술 분야인 전자기파 인증 발판을 전남에 마련하게 됐다"며 "e-모빌리티, 플라잉카 등 미래형 운송기기 산업의 메카로 거듭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공공 개발' 광주 무등산 신양파크호텔 매입비 300억원

### 광주시, 사업 계획안 의회 제출 감정평가 거쳐 사업비 확정

공동주택 건립 대신 공공 개발로 결정된 광주 무등산 신양파크호텔 사업비가 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시의회에 무등산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공유화 계획이 담긴 공유재

산관리계획안을 제출했다.

시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신양파크호텔 부지(4만㎡)와 건물(연면적 1만 5000㎡·지하 2층~지상 6층)을 매입해 무등산의 생태·지질·문화적 가치와 연계·개발할 계획이다.

현재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토지 매입비 162억원, 건물 매입비 29억원 등 사업비 29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사업비는 공시가격에서 1.54를 곱하고 감정평

가수요를 포함해 산출한 것이다.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 올해 30억원, 내년 166억원, 2023년 100억원 등 분할 매입한다. 시는 시의회에서 공유재산계획안이 통과하면 환경단체 등과 협의해 사업안을 확정한다.

사업비는 시와 호텔 측이 각각 감정평가를 수행하고 그 평가액의 평균을 토대로 결정할 방침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전남도, 친환경농산물 '착한소비' 동참 롯데마트와 캠페인

전남도가 친환경농산물은 제값에 팔고, 소비자는 안전한 전남친환경농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착한 소비' 친환경농산물 판매촉진 행사를 추진한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28일부터 롯데마트 광주·전남 9개 매장을 시작으로 온·오프라인으로 친환경농산물 최대 30% 할인행사가 펼쳐진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친환경농산물 할인행사 차액비 지원 공모사업'의 하나로 올해 초 전남도와 전남의 광역단위 생산유통 산지 조직인 호남권친환경농산물센터가 국비 3억원을 확보해 추진한다.

소비자는 전국 농협 매장, 온라인쇼핑몰 남도장터 등에서 10억원 상당의 전남 친환경농산물을 20%에서 30%까지 저렴하게 구입하면서 코로나 19로 어려운 친환경 농가를 돕는 착한 소비에 동참할 수 있다.

호남권친환경농산물센터는 롯데마트와 상생협력해 수원·월드컵·첨단·상무 광주 4개 점포, 나주·목포·남양·여수·여천 전남 5개 점포에서 멜론, 대

추방울, 양파, 감자, 애호박, 새송이, 깻잎, 상추 등 전남산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한다.

5월부터 친환경 유기농 전문브랜드 업체인 '초록마을'과 온라인쇼핑몰 '남도장터', '농협몰'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학교 급식 납품 등에 어려움을 겪는 친환경농가를 돕기 위해 다양한 소비 촉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해 도내 2669개교 42만 명에게 160억원 상당의 농산물 1428t을 공급하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시범사업 등 다양한 판로 확대 정책을 추진했다.

올해는 일반 소비자를 친환경과 안전먹거리 등 가치소비를 추구하는 고령 고객으로 확보해 소비처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남산 친환경농산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홍보하는 착한 소비 친환경농산물 판매 촉진행사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색(色)채도시 장성에서 즐기는 색(色)다른 여행

# 엘로우시티 장성